

캐나다, 온실가스 감축 적극 지원!

에너지효율 제고에 10억C달러 투입 ... 교토의정서 요구에는 미달

캐나다가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인 교토의정서 의무 이행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가정과 기업에 10억C달러(약 86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발표했다.

8월12일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에너지 효율을 높인 가정에 최대 1000C달러 지원금 지급 ▷수소연료 기술 개발에 1억3000만C달러 투입 ▷에탄올 생산량 증대에 1억C달러 투입 ▷청정 화석연료 기술 개발에 1억1500만C달러 투입 등을 담고 있다.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간주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현재에 미래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앨런 록 산업부 장관은 “공개된 방안은 환경친화적 접근일 뿐만 아니라 보기 드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축방안 시행으로 캐나다는 한해 20메가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2010년까지 240메가톤 감축을 제시한 교토의정서 요구수치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다.

캐나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 더욱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등 포괄적인 감축방안을 놓고 업계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14>